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신년특집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토크생활체조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그린실버 고장이 좋다	00 신년특집 SBS스페셜 (중국 황의 비밀 1부)(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황금의 펜타곤 2(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사랑별, 천년 황궁을 찾아서)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TV 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신년특집 오늘, 미래를 만나다(재)	25 폭독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30 영상앨범 산(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5 헬로키즈 블루말라 공룡여행 55 내사랑 동	00 SBS 뉴스 10 겨울방학 특집 파파포(재)
4 0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KBS 뉴스4 10 신년기획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즈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자기 그래피	10 외계가족 출리돌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스페셜 15 KBC지니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산이의 토코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물궁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달려라 장미)	10 시시타지 때마부마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결혼이야기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월화드라마 <편지>
11 00 여변호사가 말한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2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3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20 T 타임 50 일약특목 ①:10 다류극장(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삼한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바비킴-이우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무한도전’은 무한질주 중

‘토토가’ 예능 ‘마의 시청률’ 20% 돌파... 90년대 향수에 시청자들 감동

‘무한도전’은 제목 그대로 ‘무한도전’이었다. 지난 3일 방송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는 언젠가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마의 시청률이 돼버린 전국 시청률 20%를 가볍게 넘어섰다. 전국 22.2%, 수도권 24.9%의 시청률은 지상파 TV에서 말아나버린 줄 알았던 예능프로 시청률 20%를 뚫은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무한도전’ 최고의 시청률이다. 전주(12월 27일)에 이어 1990년대 가수들의 무대인 ‘토토가’를 선보인 ‘무한도전’은 지난주의 여세를 몰아 토요일 오후 6~8시 시간대를 ‘악’ 소리 나게 점령해버렸다.

전주 19.8%로 20%에 아깝게 못 미쳤던 전국 시청률이 언젠가부터 예능 프로그램에는 ‘마의 시청률’이 돼버린 전국 20%를 이날 가볍게 넘어섰고, 수도권 시청률 역시 전주 21.9%에서 24.9%로 상승했다.

MBC는 4일 ‘전날 밤 ‘무한도전 토토가’를 가장 많이 본 성·연령층은 4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

MBC는 시청률조사회사 TNMS의 자료를 인용해 ‘무한도전 토토가’는 여자 40대(28.3%), 여자 50대(22.3%), 남자 40대(21.5%), 여자 30대(21.3%), 여자 20대(21.0%) 순으로 많이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청춘을 향유한 30~50대가 가장 많이 ‘토토가’를 시청했고, 특히 40대는 남녀 모두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한도전’이 선보인 ‘토토가’ 특집에 경쟁사인 KBS와 SBS 예능국은 한방 제대로 맞았다.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 됐거나, 아예 마이크를 놓아버린 1990년대 가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그때 그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기획은 불가능에 가까워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한도전’이 ‘토토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많은 가수가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예초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무한도전’은 ‘1990년대 가요계의 소환’이라는 무모한 도전에 뛰어 들었고, 결국 멋지게 성공해냈다. 한동안 TV를 떠나있던 많은 시청자가 ‘토토가’를 보기 위해 지난날 27일에 이어 2주 연속 ‘무한도전’에 채널을 고정시켰고, 덕분에 멀쩡히 말아나버린 줄 알았던 시청률도 속속 귀환하며 1990년대에는 흔했던 20%를 넘어섰다. 평소 10%대 초반의 시청률을 기록해온 ‘무한도전’은 불가능해보였던 ‘토토가’ 프로젝트로 시청률이 무려 10여%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토토가’가 끝난 후 ‘무한도전’ 게시판에는 이 세대의 추억담이 흘러넘쳤다. “아직 못 본 가수들이 많다”며 시즌2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도 쏟아졌다.

당시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해 금급이계의 노래 번호를 꿰고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리얼극장(아름디)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다큐 오늘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덩동영 유치원(재)	<일본의 맛을 찾아서, 규슈>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30 한국기행(일출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크프라이드
08:00 덩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굼디와 친구들(재)	<신년특집 교육대기획>
08:20 두다다쿵(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공부 맛 기행>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달려주세요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	23:35 세계 걸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 볼츠(재)	14:10 스포츠웨어 놀자	17:45 두다다쿵	<패루 맛 기행>
09:20 출동 슈퍼왕스(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10 광복70년 특별기획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티어스	신년특집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일기	12:10 2016 수능개념(윤선명의 영어)	07:00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대비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0:5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1:4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예비과정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학교교육 드라마
02:30 수능길잡이	14:50 <김소연의 수학 II>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어린이 손자병법)
03:20 <수학 I>	15:40 2016 수능일기	09:00 출간순 수학 EBS MATH	17:20 백정균의 중학수학 I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윤중현, 윤선명의 국어>	09:10 중학예비과정	18:00 중학예비과정 <수학 ③>
05:00 <영어특해 유형>	17:20 <오광석의 수학 I>	09:50 <국어 ①②>	18:40 <영어 ③>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0:30 <영어 ①>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19:20 <최은진의 수학 I>	11:10 <수학 ②>	20:00 EBS 기획특강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00 <김소연의 수학 II>	11:50 <국어 ⑤⑥>	20:50 EBS 기획시리즈
09:10 <독서와 문법>	20:50 <주혜연의 영어>	12:30 <영어 ②>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21:50 수능길잡이	13:10 중학 m포스 수학 I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0:50 <최은진의 수학 I>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4:30 중학 m포스 수학 2	22:40 <국어 ③④>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 I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세계걸문록 아틀라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5일(음 11월 15일 辛巳)

子	48년생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해어날 수 없는 오류에 빠진다. 60년생 고난은 진정한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72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16, 02	午	42년생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54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만 한다. 66년생 상대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78년생 예기치 못한 난제에 봉착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08, 19
丑	49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61년생 창조의적인 발상이 도움이 될 것이다. 73년생 비밀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함구하여야 한다. 85년생 근거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자. 행운의 숫자 : 93, 49	未	43년생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게 될 일이 있다. 55년생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게 될 것이다. 67년생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자. 79년생 객관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상이 바뀌어 버린다. 행운의 숫자 : 45, 62
寅	38년생 핵심을 짚자. 50년생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몹시 혼란스럽겠다. 62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는 모습이나, 74년생 경청한다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 법이다. 86년생 다각적인 고찰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50, 59	申	44년생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대전이 보인다. 56년생 원칙대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 68년생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80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는 않지만 파국적인 발전도 없다. 행운의 숫자 : 10, 46
卯	39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자. 51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판도에서 무능하게 된다. 63년생 이바지 하라. 75년생 대외 활동을 펼쳐 나가도 된다. 87년생 관리만 잘 해준다면 아쉬울 때 갸히 쓰이리라. 행운의 숫자 : 17, 26	酉	45년생 일단 수용한 후에 후일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57년생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리라. 69년생 명분이 있는 동기라면 설득력을 갖게 되나, 81년생 음덕을 쌓는 거북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7, 38
辰	40년생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성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2년생 유독 빛나게 될 것이다. 64년생 지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76년생 가까운 이와 소원함이 보이나 머지않아 해소되겠다. 행운의 숫자 : 35, 82	戌	46년생 오래된 것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받게 될 것이다. 58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임박하였나, 70년생 소홀히 여긴다면 꼭 후회하게 되리라. 82년생 예기치 않은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90, 19
巳	41년생 숨은 뜻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53년생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혼선이 올 수도 있나, 65년생 운명의 소용돌이가 보인다. 77년생 결과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28	亥	47년생 진면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59년생 평소처럼 현명히 대처자. 71년생 현재의 위치가 진행 방향의 기준이 될 것이다. 83년생 실패와 기회는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7, 7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국제시장’ ‘언브로큰’ ... 극장가 ‘뜨거운 감자’

패이안 이념논쟁에 日 포로수용소 장면 논란

격동의 근현대사를 힘겹게 살아 낸 인물의 인생 역정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 2편이 국내외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유재석 감독이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국제시장’과 할리우드 톱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맡은 영화 ‘언브로큰’이다.

‘국제시장’은 과거사를 미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패이안 이념 논쟁을 불러왔고, ‘언브로큰’은 일본 극우 단체로부터 상영 금지와 앤젤리나 졸리의 일본 입국 금지 운동을 겪고 있다.

먼저 윤 감독이 “아버지 세대에 대한 헌사”라며 만든 ‘국제시장’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희생해 온 평범한 한 아버지 덕수(황정민 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한국전쟁을 비롯해 독립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찾기가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다뤄진다.

문제는 윤 감독이 덕수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치 부분은 뺐다”면서 가볍게 다룬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여전히 분분한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영화가 “박정희 시대를 미화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정치권의 잇따른 ‘국제시장’ 관람, 아전인수식 해석 등과 맞물리며 이념 논쟁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1940년대 미국의 영웅’ 루이 잠페리의 실화를 다룬 ‘언브로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루이가 850일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 고초를 겪는 장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포로수용소의 감시관 와타나베 상병 역을 맡은 일본 톱스타 미야베가 재일동포 3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야베를 일본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 USA 투데이에 따르면 졸리는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전쟁의 모든 실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결국 전쟁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을 영화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영화 속에 그려진 일본 포로수용소의 모습은 원작만도 못하다. 원작은 일본인이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것이나 인육(人肉)을 먹기도 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영화 속 포로수용소 모습은 루이에 대한 구타와 가혹한 노동이 전부다.

오히려 여타의 전쟁 영화가 표현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밋밋해 일본에서 이처럼 반발하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다. 심지어 일각에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영화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 영화 외적으로 더 화제가 된 두 영화는 극장가의 ‘뜨거운 감자’답게 나름대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제시장’은 개봉 첫 날을 제외하고 연일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개봉 16 일째 누적관객수 6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번 주말 700만명 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출뉴스